

Grace & Force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은화* · 이원희**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 친구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 자신의 핵심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로 이소희와 김일부(2020)가 수정 보완한 Johari's Window 에서 제시한 52개의 형용사를 활용하였다. 열린 창에 배치된 사전·사후검사의 형용사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형용사를 선택한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초등학생용 Grace & Force 코칭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핵심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학교급(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교급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Grace & Force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핵심역량, 조하리의 창

논문 투고일: 2022. 04. 30.

최종심사일: 2022. 06. 20.

게재확정일: 2022. 06. 27.

* 구립벽산꿈어린이집 원장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부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Park, Eun Haw, Byucksan Dream Daycare Center, 816 Geumha-ro, Geumcheon-gu Seoul, Korea. 08646. E-mail: weun7942@hanmail.net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화 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번득이는 생각이 큰 힘이며, 조직과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화 마인드와 창의적인 발상 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교육의 흐름은 창의와 융합에 맞추어지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창조문화 강국 실현’ 등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에서 창의성 교육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이경화·양혜진, 2015).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에 필요성을 느낀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습자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22). 이미 2015년 교육 과정에서도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 핵심역량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와 학제 밖에서 교과 및 비교과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핵심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연구도 적용 기간이 짧아서 주제에 따른 중·장기적인 연구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이런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창의적 인간육성 및 창의융합형 육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박선영, 2019; 허경철, 2016; 지은림 외, 2014). 그렇다면 왜 지난 20여 년 동안 창의적 인간 육성이라는 목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또 과거와 달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은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및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안종배, 2017; 김정자 외, 2015). 이는 국가적·사회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글로벌 인재에 대한 지도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성숙·김정일, 2021).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의 창의적 인간육성 및 창의융합형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2015)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인 창의융합형 인재와 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는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이 또한 초등학생의 글로벌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초등교육은 전인적 인간 형성을 중시하는 과정으로서 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아동의 학업성취나 포부 수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원식, 1970).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의 지표가 되며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Bradley et al.,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 스스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제 3자가 자신에게 보내는 피드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기 성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형용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모델이 개발되었다. Johari's window(조하리의 창)는 인간을 4개의 마음의 창에 배치하여 자신을 보고 반성하거나 개선 의지를 가지며 인간관계를 확대해 보는 것이다(박수경, 2016). 이는 1950년대에 개인 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Luft & Ingham(1955)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서 자아성장과 인식 등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졌다(이경우·김경희, 2007). 또한 자기인식의 이해, 자기개발, 대인 및 집단관계, 팀과 그룹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용된다(장명철, 2014; 강현진, 2008; 김진화 외, 2008; Your brain, just brighter, 2014).

지금까지 진행된 자기 인식이나 자기 성장의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박민경, 2021), 자아 인식실태(김정란, 2014), 역량강화(박수경, 2016; 김주영, 2012), 자기이해(김혜원 외, 2022; 임예신, 2019; 고은비, 2018), 자기 성장을 위한 자기분석(이소희·김일부, 2020; 오선주, 2018)들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성장을 위한 자기분석 도구로 분석한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미비하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이해, 태도 변화를 통해 자기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함으로서 자신과 집단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객관화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김혜원 외, 2022)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자신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소희와 김일부(2020)의 Grace & Force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Grace & Force 프로그램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Grace & Force 프로그램

Grace & Force 프로그램은 이소희와 김일부(2020)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Grace & Force 프로그램은 융합적 역량을 지닌 탁월한 글로벌 영리더가 육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일반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Grace는 우아함으로 주로 여자 아동·청소년을 지칭하고, Force는 담대함으로 뜻하며 남자 아동·청소년을 지칭한다. 특히, 프로그램명인 Grace와 Force의 목표 가치인 Excellence 및 방법상의 가치인 Consilience 모두가 ‘ce’로 끝남으로써 통일성이 있으며, 코칭모델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 각인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코칭모델에서 사용되는 방식인 이니셜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섭(Consilience)적 접근방법을 통해 탁월(excellence)함에 이르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는 통섭(Consilience)적 접근방법을 통(excellence)함에 이르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재 가치는 <표 1>과 같다. 이는 일반적으로 코칭모델에서 사용되는 방식인 이니셜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다.

<표 1> Grace & Force 프로그램에 내재 된 가치

GRACE		FORCE	
Gardener	정원사의 자세로	Forcast	미래사회변화를 예측하며
Reader	독서로 지혜를 쌓으며	Organization	조직적 기획력을 지니며
Artist	심미적 감각을 기르며	Responsibility	책임을 지고
Coach-Leader	서로 코칭하고 이끌며	Completion	완성도를 높이며
Economist	경제적 역량을 키우며	Empowerment	격려하며 나아가는

출처: 이소희 외(2020). Mind Way 코칭모델-도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1).

본 연구의 실행에서는 심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나머지 5가지 영역에서 우아함과 담대함에 내재 된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통섭적 접근에 따른 융합을 통해 글로벌 영리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통섭은 자기 것을 지키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철학이다”(최재천·주일우, 2017)는 점에서 지지를 받는다.

	자신은 안다	자신은 모른다
타인은 안다	열린 창 Open	보이지 않는 창 Blind
타인은 모른다	숨겨진 창 Hidden	미지의 창 Unknown

[그림 1] Johari' s Window

Johari's Window 넓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가며, 자기 스스로 집단 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 창 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Luft & Ingham, 1961). ‘열린 창(Open window)’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영역의 정보가 많을수록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창(Hidden window)’은 다른 사람은 알고 있으나 자신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정보가 많을수록 자기 자신 스스로 이해가 요구되어 진다. ‘숨겨진 창(Blind window)’은 다른 사람에게에는 알려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뜻한다. 이창은 남에게 의도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이 영역이 넓을수록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관계 형성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개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창(Unknown window)’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잠재 부분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인간관계에서 소극

적이거나 고립된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통찰을 통해 자기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하리의 창은 자기 성장을 위한 자기분석 도구로써 57개의 형용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창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마다 접근방법에 따라 제시하는 형용사의 선택 기준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결국 조하리 창 이론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점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혜원 외, 2022). 특히, 이 4가지 영역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과 팀 구성원 간의 피드백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Your brain, just brighter, 2014).

한편, 이소희와 김일부(2020)는 조하리의 창에서 제시한 형용사 57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개발하였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첫째, 현시점에서 볼 때, 60년 전에 선정된 형용사이므로 W-MW 도구에서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W-MW 도구의 주 적용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이들의 발달 특성과 생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Grace & Force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형용사의 선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 따라 W-MW 도구의 개발은 2차 과정을 통해 형용사를 선정·구성하고 개발하였다. 또한 조하리의 창은 2명의 심리학자에 의해 57개 형용사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는데, 이소희와 김일부(2020)도 2명의 공동연구자가 2차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도와 타당성을 확인하여 52개의 형용사를 공동 개발하였다. 형용사 선정을 통한 조하리의 창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제시된 형용사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6개를 선정한다. 그다음에 자신이 선정한 형용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선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형용사를 조하리의 창에 각각 분류, 배치한 후 자신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 방법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나타난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원만한 관계와 성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소희와 김일부(2020)가 조하리의 창을 원용한 자기성장을 위한 자기분석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에 나타난 분석은 초등학생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유형화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성장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는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기 교육 핵심역량

초등학교 아동기는 인간 발달에서 중간에 해당되며 초등학교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아동들은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하게 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형성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아동은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뚜렷하다(김경자 외, 2015). 이러한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기 때문에 아동기의 긍정적 관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진다(이소희, 2019). 즉,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성, 정체성 등의 확립이 정교해지는 중요한 시기(윤정애, 2020)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개선하였다. 핵심역량을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과 성격에 대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체계화하였는데 2015년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융합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를 2022년에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2). 이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3. Grace & Force 프로그램과 핵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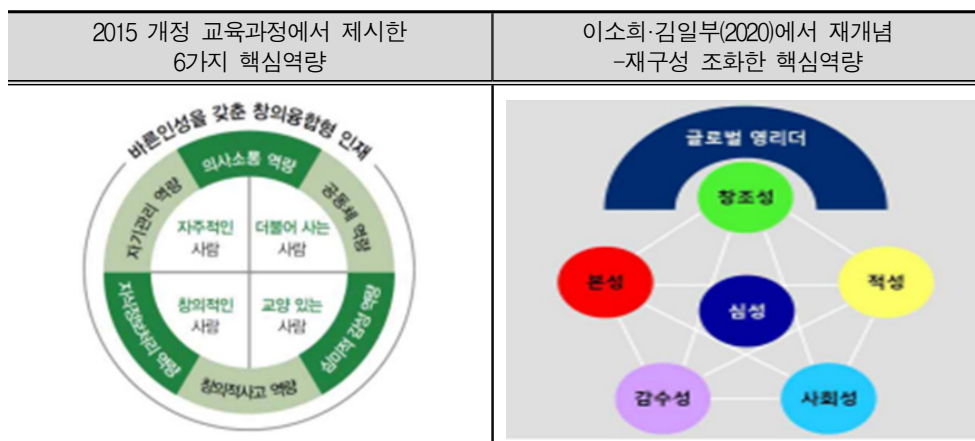
이소희(2012, 2017)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글로벌 영리더’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였으며, 이소희와 김일부(2020)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4가지 관점에서 코칭접근에 따른 모델-도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연구의 범위는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의 민간 차원에서 개별 교과보다는 비교과 차원에서 ‘일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2018; 한혜정 외, 2016; 교육부, 2015).

둘째, 일반 역량은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와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이 ‘창의융합형 인재=글로벌 영리더’의 의미를 쉽게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그림 2]와 같이 자기관리 역량→본성, 지식정보처리 역량→적성, 창의적 사고역량→창조성, 심미적 감성 역량→감수성, 의사소통 역량→심성, 공동체 역량→사회성으로 재개념화 하였다. 특히 [그림 2]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상위 및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 주목하여(교육부, 2015; 김정자 외, 2015) ‘심성’을 모델의 중심에 두고 재구조화함과 동시에 서로 연결되면서 통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 방법은 융합을 위해 적합성이 높다고 보는 통섭(consilience)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넷째, 실제 교육대상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 코칭이다. 특히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융합을 위한 일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코칭접근법 활용하기’와 ‘코칭하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코칭모델-도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한국코칭학회, 2017; 이소희 외, 2014; 박정영, 2009).



[그림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 및 이소희와 김일부(2020)의 재개념-재구성 조화한 핵심역량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 방법을 이소희와 김일부(2020)연구 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W-MW 도구-Grace & Force 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효과 분석을 위해 실

제 교육대상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및 시간, 인터뷰 등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하고 마지막 회기까지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아동으로, 총 12명이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구학적 배경

성별\연령	11세	12세	13세	계
남자	2	2	2	6
여자	3	0	3	6
합계	5명	2명	5명	12명

연구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각 50%(6명씩)로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8명(66.7%)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4명(33.3%)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절차

1) 연구 동의서 작성

선정된 12명의 연구 대상에게 연구와 관련한 상세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참여와 기본정보

의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기한 이후 관련 사항을 모두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프로그램의 진행

개발자인 이소희와 김일부(2020)에 의해 개발된 Grace & Force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Grace & Force 프로그램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으나, 연구자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게 남녀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회기별 시간도 40분으로 축소하였다. 사전활동을 포함한 총 7가지의 영역을 각각 1회기(40분)로 구성하여 총 7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K구 S교회 초등학생 8명과 경기도 K시 H 초등학교 학생 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2022년 2월 19일(토) 4회기, 26일(토) 3회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심성에 해당하는 W-MW의 경우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회기에 포함된 검사들은 모두 W-MW의 열린 창 확장을 위한 스크리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W-MW의 사전검사는 심성의 영역을 교육한 회기에 진행된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사는 마지막 회기를 진행한 후 2주 뒤에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이소희와 김일부(2020)에 의해 개발된 W-MW(Wonderful Mind Way)로서 러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햄(Harry Ingham)이 개발한 Johari's Window을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형용사의 구성 및 2차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52개의 형용사를 말한다.

<표 3> 이소희와 김일부(2020) W-MW의 52개의 형용사

감성적인	마음이 넓은	욕심많은	주의깊은
겸손한	민감한	용기있는	즐거운
고집센	믿음직한	우울한	지혜로운
공격적인	배려하는	유머있는	진지한
긍정적인	부끄러워하는	자기주장이 강한	참을성 있는
깔끔한	불안한	자기중심적인	창의성있는
낙천적인	성실한	자발적인	책임감있는
내성적인	솔직한	자신감있는	친근한
논리적인	수줍어하는	재능있는	친절한
느긋한	에너지 넘치는	적극적인	침착한
도전적인	예민한	정의로운	편안한
독특한	예의바른	정직한	호기심 많은
따뜻한	외향적인	조심성 있는	활동적인

출처: 이소희 외(2020). Mind Way 코칭모델-도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연구(1).

<표 4> W-MW의 활용방법

- 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6개 선택한다.
- ② 자신에 대해 아는 주위의 다른 사람(*상대방)도 6개를 선택한다.
- ③ 자신과 상대방이 똑같이 선택한 형용사를 ‘열린 창(open)’에 넣는다.
- ④ 자신은 선택했으나, 상대방이 선택하지 않은 형용사는 ‘숨겨진 창(hidden)’에 넣는다.
- ⑤ 상대방은 선택했지만, 자신은 선택하지 않은 형용사를 ‘보이지 않는 창(blind)’에 넣는다.
- ⑦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선택하지 않은 형용사는 ‘미지의 창(unknown)’에 넣는다.
- ⑧ 이 과정이 끝나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출처: 이소희 외(2020). Mind Way 코칭모델-도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1).

선정된 52개의 형용사는 Johari's Window에서 제시하는 4개의 창(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에 배치된다. 각각의 창은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 대한 앞의 성격을 말해 주며, W-MW에서 선별된 52개의 형용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열린 창(open)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제라고 보았다(이소희·김일부, 2020).

4. 자료분석

Grace & Force 프로그램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은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하였다. 사전검사의 열린 창에 배치된 사전·사후검사의 형용사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형용사를 선택한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등학생용 Grace & Force 프로그램

Grace & Force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Grace & Force 프로그램은 원래 7회기(14시간)이었으나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남녀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7회기(회기당 40분)로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것은 <표 5>와 같다.

<표 5> 초등학생 대상 Grace & Force 프로그램

회기	영역	시간	기본활동 2가지
1회기	사전 활동	20분	노래 감상과 부르기: ‘내마음’노래 감상하기(김동명작사 / 김동명작곡)
		20분	시 감상하고 읊어보기:‘꽃’, 김춘수
2회기	심성	20분	시간 선을 활용한 나의‘마음의 길’걸어보기
		20분	W-MW 도구를 활용한 셀프 및 피어 코칭하기
3회기	본성	20분	나는 어떤 사람임가) 나의 강한성격 말하기/ 나의 약한 성격 말하기)
		20분	비전 에니어그램 성격 검사하기
4회기	적성	20분	제니퍼 폭스의 강점 검사하기,
		20분	V.A.K 프로파일 작성하기
5회기	감수성	20분	가고 싶은 곳 소망목록 작성하기
		20분	여행에 대한 나의 바라는 것 작성하기
6회기	창조성	20분	사물을 주제로 한 포토 보이스 만들기 / Word Cloud 구성하기
		20분	하고 싶거나 꼭 가지고 싶은 나의 Bucklist 리스트 작성하기
7회기	사회성	20분	황금원 모델에 의한 리더십 검사하기
		20분	나 리더십-우리 리더십 골든벨을 올려라
총 7회기			

2.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 형용사 빈도 분석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 초등학생들이 선택한 형용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열린 창(open)에 배치된 형용사의 수

이름	성별	연령	사전검사	사후검사
최00	여	11	1(예의바른)	3(예의바른, 따뜻한, 배려하는)
이00	여	11	2(솔직한, 내성적인)	4(내성적인, 수줍어하는, 믿음직한, 정직한)
박00	여	11	1(자기주장이 강한)	2(자기주장이 강한, 재능 있는)
백00	남	11	2(내성적인, 고집센)	4(내성적인, 고집센, 정직한, 성실한)
허00	남	11	3(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친근한)	2(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박00	남	12	4(참을성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마음이 넓은)	5(참을성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마음이 넓은, 불안한)
손00	남	12	3(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용기 있는)	4(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공격적인, 외향적인)
이00	여	13	2(즐거움, 예민한)	4(즐거움, 예민한, 활동적인, 낙천적인)
염00	여	13	1(독특한)	3(독특한, 부끄러워하는, 우울한)
김00	여	13	4(즐거움, 논리적인, 긍정적인, 호기심 많은)	2(즐거움, 낙천적인)
정00	남	13	1(느긋한)	4(느긋한, 따뜻한, 유머 있는, 침착한)
권00	남	13	2(깔끔한, 책임감 있는)	4(깔끔한, 책임감 있는, 내성적인, 예민한)
총 12명			25개	41개

위 <표 6>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25개의 형용사가 선택되었으나,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검사에서는 41개의 형용사가 선택되어 학생들이 열린 창 of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형용사 한 개 선택한 학생이 4명으로 ‘예의바른, 자기주장이 강한, 독특한, 느긋한’의 형용사를 선택하였다. 2개 선택한 학생은 4명으로 형용사는 ‘솔직한, 내성적인, 고집센, 즐거움, 예민한, 깔끔한, 책임감 있는’ 등을 선택하였다. 3개는 2명

이며, 선택한 형용사는 ‘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친근한, 용기있는’ 이다. 4개는 2명이며, ‘참을성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마음이 넓은, 즐거운, 논리적인, 긍정적인, 호기심 많은’이다. 사후검사에서는 2개를 선택한 학생은 1명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재능있는’, 3개를 선택한 학생은 2명이다. 그것은 ‘예의바른, 따뜻한, 배려하는, 독특한, 부끄러워하는, 우울한’ 이다. 4개를 선택한 학생은 6명으로 ‘내성적인, 수줍어하는, 믿음직한, 정직한, 고집센, 성실한, 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공격적인, 외향적인, 즐거운, 예민한, 낙천적인, 느긋한, 따뜻한, 유머 있는, 침착한, 깔끔한, 책임감 있는, 예민한’ 이다. 5개를 선택한 학생은 1명이며 선택한 형용사는 ‘참을성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마음이 넓은, 불안한’ 이다.

2) 질적 분석

대부분의 학생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형용사의 선택이 증가하였으나, 2명의 학생은 형용사의 선택이 감소하였다.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허00의 남자 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친근한을 선택하였는데 사후에는 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의 형용사를 선택하고 ‘친근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인터뷰한 결과이다.

“저는 원래 제가 정말 ‘친근한’ 줄 알았어요. 엄마랑 저랑 똑같이 선택한게 처음엔 ‘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친근한’ 이거 세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친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할 때는 ‘친근한’을 뺐어요. 엄마가 선택한 형용사는 바뀌지 않아서 2개로 된 것 같아요. 에니어그램 시간에 들으니까 저한테 완전 딱 맞는게 좀 안 좋은거더라고요. 원래는 좋은 단어들만 선택했었는데 나중에는 ‘공격적인, 고집센’ 이렇게 들어갔어요.” (연구대상 허00, 남아 11세)

둘째, 대상자 김00의 여자 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즐거운, 논리적인, 긍정적인, 호기심 많은’의 4개의 형용사를 선택하였는데, 사후에는 ‘즐거운, 낙천적인’ 2개를 선택하였다. 사전검사의 3개를 선택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는 제가 에니어그램 7번이 나온 거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인생이

즐거운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냥 특이한 애 줄 알았는데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개수가 줄어든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저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처음에 검사 할 때는 긴가민가한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카드를 골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안 좋은 모습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은 나를 표현한다고 해도 고르기 싫더라구요. 근데 나중에 할 때는 확실히 카드를 고를 때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고 해 가지고 그 카드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니어그램도 하고, 강점도 하고, 리더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거를 알게된 것 같기도 해요.” (연구대상 김OO, 여아 13세)

마지막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선택하지 않은 형용사가 배치된 ‘미지의 창(unknown)’은 성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연구자는 미지의 창에 배치된 많은 형용사들 중, 열린 창으로 가져오고 싶은 형용사를 두 개씩 선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저는 성실하고 싶어요. 제가 에니어그램 9번이고, 느긋하고 여유로운게 좋은 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느긋해서 좀 느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닌데 저도 스스로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을 선택했어요.” (연구대상 정OO, 남아 13세)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해서 원하는 걸 다 말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한 번이라도 내 중심으로, 내 주장하면서 살고 싶어요.” (연구대상 권OO, 남아 13세)

그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을 가지면 더 ~게 될 것 같아요”의 방식으로 미지의 창에 대한 계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열린 창(open)’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Grace & Force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 코칭모델의 도구와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후속 연구로 진행 되어진 이소희(2014)의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후속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 연구결과(원종순, 2020; 송선희, 2018; 제경자 외, 2018; 조은영, 2017; 김일부·이소희, 2016; 박은화·이소희, 2016; 강은숙, 2015)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선행연구의 지지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Johari's Window에서 제시하는 4개의 창(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에 형용사를 배치하였으며, 52개 형용사 중 ‘열린 창에 배치된 형용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사에서 25개의 형용사가 사후검사에서는 41개의 열린 창에 배치되었다.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는 16개의 형용사의 차이가 났다. 8명의 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선택한 형용사를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은 사후검사에서는 형용사를 추가로 확장하여 배치하였다. 반면, 2명의 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선택한 형용사를 포기하고 다른 형용사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00의 남자 아동은 ‘참을성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마음이 넓은’을 배치하였는데 사후검사에는 ‘참을성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마음이 넓은, 불안한’의 형용사를 추가 시켰다. 또, 염00의 여자 아동은 사전에는 ‘독특한’을 배치하였고, 사후에는 ‘부끄러운, 우울한’의 형용사를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불안한, 우울한’의 형용사를 배치한 두 아동은 현재의 심리적인 부분과 성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 특히, 손00의 남자 아동은 사전보다 사후에 형용사가 추가 되었다. ‘에너지 넘치는 활동적인, 용기 있는, 공격적인, 외향적인’의 형용사를 배치하였다. 위와 같이 심리적 또는 성격의 아동과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아동은 자신과 대인관계를 위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Grace & Force 프로그램의 목적인 ‘열린 창(open)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제’에 부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W-MW에서 선별된 52개의 형용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열린 창(open)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제라고 보았다(이소희·김일부, 2020)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조하리의 창은 자신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모델로 여러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연구주제 및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형용사의 재선정과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다(김혜원 외, 2022). 이는 유아 부모의 상호작용 교육을 위한 자기 이해 도구로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부모 스스로 자신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구이다. 김혜원 외(2022) 연구는 본 연구에서 조하리의 창을 원용하여 재 구조화한 아동의 특성과 발달을 위한 자기 성장 도구(W-MW) 활용은 아동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객관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데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둘째, 연구 대상 전체가 열린 창 of 크기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전검사에서 배치된 열린 창 of 형용사 수가 사후검사에서는 2명이 줄었다. 연구참여자 김00과 허00으로 그 이유에 대해 인터뷰 한 결과, 열린 창 of 개수 감소에 대해 ‘자기인식의 확장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정적인 것도 자신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선택하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열린 창 of 확장에 반대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기인식에 대한 높은 수준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상자들은 ‘숨겨진 창’과 ‘보이지 않는 창’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자신은 선택했으나, 상대방이 선택하지 않은 형용사인 ‘숨겨진 창(hidden)’과 상대방은 선택했지만, 자신은 선택하지 않은 형용사인 ‘보이지 않는 창(blind)’에 대한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창 모두 자신 또는 상대방이 연구대상자를 표현한 것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은 사전검사 시, ‘보이지 않는 창(blind)’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졌으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자신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확인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선택하지 않은 ‘미지의 창’에 대한 계발 의지가 나타났다. 형용사가 배치된 ‘미지의 창(unknown)’은 성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연구자는 미지의 창에 배치된 많은 형용사 중, 열린 창으로 가져오고 싶은 형

용사를 두 개씩 선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도록 한 결과, 미지의 창에 대한 개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열린 창(open)’의 확장에 기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자신의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변화의 노력이 중요함을 제시한다(김일부·이소희, 2016; 정계숙·최은실, 2013)는 본 연구를 지지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본도구(W-MW)에 제시된 52가지 형용사 중 ‘열린 창에 배치된 형용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하리의 창에서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에 대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살펴보는 워크숍 또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초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생각도 공유하여 학생 자신만의 개발 의지를 고민하고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 개개인이 상대에 대한 이해와 그 학생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포괄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연구도 진행하여 다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은숙(2015).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유아교사의 상호작용기술 증진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비(2018). 자기 이해 활동을 통한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실행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진(2008). 개인의 특성과 갈등관리 유형의 관계 연구: 부산시 소재 국립대학교 및 교육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5. 09. 23).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 11. 24).
- 김광수(2019). 성격강점 활용 진로교육과 상담: 실제와 과제. 초등상담연구, 18(5), 593-613.
- 김경자·곽상훈·백남진·송호현·온정덕·이승미·한혜정·허병훈·홍은숙(2015).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 김일부·이소희(2016). 멘토코칭 방식에 의한 유아기 부모의 상호작용 훈련 효과: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활용. 한국가족복지학, 21(3), 489-521.
- 김정란(2014). 화법교육에서 자아 인식에 관한 실태와 교육적 시사점. 화법연구, 24, 69-100.
- 김주영(2012). 초등교사의 “국어수업 어려움” 유형에 따른 교사교육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44, 203-227.
- 김진화·변형수·임옥선(2008).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웹사이트 서비스 평가차이 분석. 한국전자거래학회 심포지움 및 기타간행물, 193-210.
- 김혜원·박현정·김일부(2022) 유아 부모의 상호작용 교육을 위한 자기 이해 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부모교육연구, 19(1), 141-174.
- 박민경(2021). 태권도 초등수련생이 인식하는 지도자의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 및 운동정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1), 17-35.
- 박수경(2016).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에 나타난 통합체육 내 체육교사의 지적장애학생 지도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5(2), 677-688.
- 박은화·이소희(2016). 영아기 어머니의 대화기술 향상을 위한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활용 가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3(1), 5-22.
- 박정영(2009). 코칭학의 유형분류를 위한 기초적 접근-코칭형태분류를 중심으로. 코칭연구, 2(1), 61-77.
- 박창규·이소희(2005). NLPia 코칭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부모코칭센터, 리더십코칭연구소.
- 송선희(2018). 신입원아 적응 준비를 위한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교육훈련 효과. TREASURE Talk 코칭모델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교준(2008). NLP 행복코드로 세팅하라. 서울: 한언.

- 오선주(2018). 교사로서의 자기 성장 사례 연구. *학교와 수업연구*, 3(2), 25-44.
- 원준순(2020). GOD 4N 모델을 활용한 크리스천 유아교사·원장의 리더십코칭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애(2020).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긍정적 정서의 역할에 관한 고찰.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학위논문.
- 이경우·김경희(2007).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경화·양혜진(2015). 창의적 사고기법 활용 프로젝트 수업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 교육연구*, 15(2), 33-47.
- 이소희(2012). 매일멋진영리더. 한국영리더십센터.
- 이소희(2014). TREASURE Talk 코칭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1). *코칭연구*, 7(1), 5-35.
- 이소희(2015). 매일멋진부모. 한국영리더십센터.
- 이소희(2016). 유아기 양육걱정과 해소를 위한 에니어그램 활용 부모교육 매뉴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이소희(2017).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녀의 진로 준비와 부모의 역할: 코칭리더십 접근. 별내중학교 특강.
- 이소희(2018). 보육현장 중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신정.
- 이소희(2019). 보육교사 인성론과 리더십. 서울: 창지사.
- 이소희(2019). 아동복지. 정민사.
- 이소희·김일부(2020). 글로벌 영리더 육성을 위한 Mind Way 코칭모델-도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1). *코칭연구*, 13(5), 5-34.
- 임예신(2019). 노래 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기개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결혼이민자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종배(2017).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7(1), 21~34.
- 장명철(2014). 설교자와 청중 관계에 기초한 효과적인 서론 구성에 대한 연구. 미간행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2018).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미래교육 프레임워크와 미래학교연구. 12-1071400-000014-01.
- 전경원(2006). 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정계숙·최은실(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원식(1970).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제경자·조은영·박은화(2018). 시니어를 위한 상호작용 교육훈련효과: TREASURE Talk 코칭모델 활용. *부모교육연구*, 15(1), 69-90.
- 조은영(2017). 영유아기 아버지의 상호작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의 구성: TREASURE Talk 코칭 모델의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성숙·김정일(2021). 청소년시설 대표의 진정성 리더십이 활동참여 청소년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지도사의 인식 만족도를 매개로.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7(1), 29-51.

- 지은림·원효현·민정석·손원숙·김태일·이선경, & 강창혁(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인수(2011). 창의성의 발견: 창의성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의해, 어떻게 발현 되는가. 샘앤파커스,
- 한혜정·김영은·이주연(2016). 교육 목적으로서 ‘일반 능력’ 설정에 대한-162 - 논의 고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의 관계에 주는 함의. *교육과정 연구*, 34(2), 1-1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분석 및 쟁점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1(3), 1-24.
- 한국코칭학회(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긍정적 패러다임. 학술대회 자료집.
- 허경철(2016). 학교교육, 제4의 길-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찾아서. 에듀인뉴스.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Vol. 1990). New York: Harper & Row.
- Dacey, J. S., Dacey, J. S., Lennon, K. H., & Fiore, L. B. (1998). *Understanding creativity: The interplay of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Jossey-Bass.
- Durkheim, E. (1973). *MORAL EDUCATION*. Free Press.
- Eisenberg N., Fabes R. A., Spinrad T. L., Eisenberg N., Damon W., Lerner R. M. (Eds.). (2007).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 646-718.
- Goleman, D. (200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Bantam.
- Howard Gardner(1998). *Extraordinary Minds: Portraits Of 4 Exceptional Individuals And An Examination Of Our Own Extraordinariness* (Masterminds Series). Basic Books.
- Lapid-Bogda, G. (2004). *Bringing out the best in yourself at work: how to use the enneagram system for success*. McGraw-Hill.
- Luft, J., & Ingham, H. (1955). The Johari window: Agraphic model for interpersonal relations. Univ, Calif. Western Training Lab.
- Luft, J. (1961). The Johari window: A graphic model of awar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 *Human Relations, Training News*. 5(1). 6-7.
- Maslow, A. H. (1942).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E.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 Your brain, just brighter(2014). Johari Window model. 검색일: 2014. 01. 06.
<http://www.businessballs.com/>.
- 교육부(2022): <https://www.moe.go.kr>

Abstract

Effect of Grace & Force Program on Core Competencies

Park, Eun hwa* · Lee, Won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children's own core competencies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form a smooth relationship with people who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growth and development. To this end, the Grace & Force program developed by Lee So-hee and Kim Il-bu (2020) was modified to sui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udy investigates the composition of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onfigured programs. The effect analysis measurement tool used 52 adjectives presented in the window of Johari's Window revised and supplemented by Lee So-hee and Kim Il-bu (2020). For effect analysis, a pre-test and a post-test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compared. The frequency of adjectives in the pre- and post-test placed in the open window of the pre-test was analyzed, and the reason for choosing the adjective was qualit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Grace & Force coach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is study was confirmed, and it is meaningful that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theoretical validity and suitability of the study.

Key Words: Grace & Force program, Johari's window, core competenc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Director of Byucksan Dream Daycare Center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Welfare, Ph.D. student.